

병원탐방

寫眞으로 본 會員 病院

玉浦大宇病院



金炯植 病院長

산업화의 물결과 함께 우리나라 조선공업기지로 발전하고 있는 거제도 옥포만.

맑고 깨끗한 潮流가 흐르는 이곳에 유일한 현대식 종합병원인 玉浦大宇病院이 위치하고 있다.

이지역은 1971년 거제대교의 개통과 옥포만과 고현만에 들어선 동양굴지의 조선공업단지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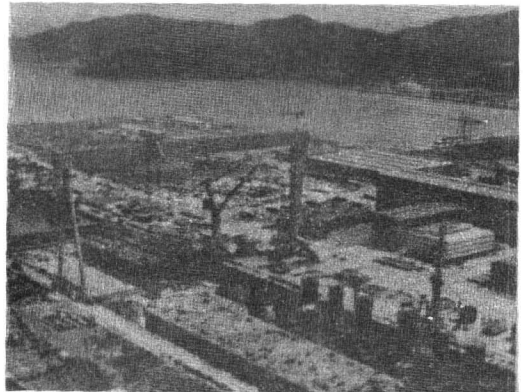
대우의료재단 옥포대우 병원이 이곳에서 진료를 시작한 것은 1980년 7월.

당시 대우조선근로자와 지역 주민에 醫療施惠를 위해 개원에 이르게되나 점차 증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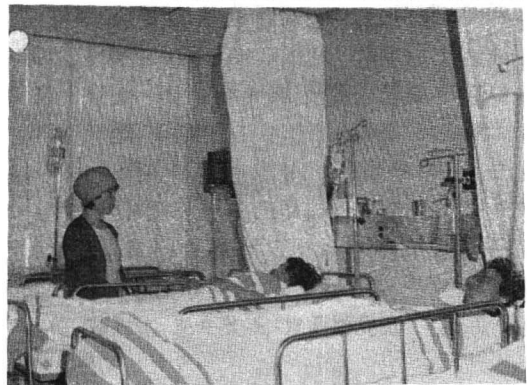
病院 沿革

- 1983. 2. 25 옥포대우병원 개원 (병원장 : 金炯植)
- 1983. 12. 24 의료법인 명칭변경 (대우조선의료재단에서 대우의료재단으로) 과재 단사무국이전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산5) 및 옥포대우병원 소재지에 사무국분소 설치
- 1984. 2. 15 180병상 증축공사 착공
- 1984. 3. 1 제2산부인과 개설
- 1984. 3. 13 가정의학과 개설
- 1984. 11. 30 증축공사 완공

玉浦만의 거대한 대우옥포조선소의 위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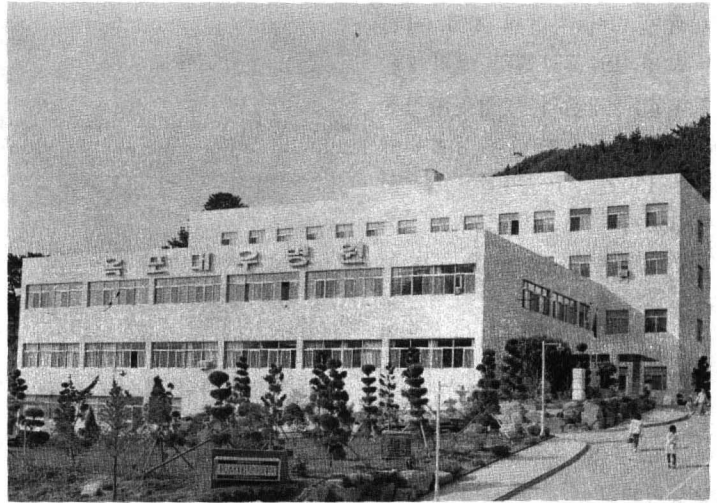
24시간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중환자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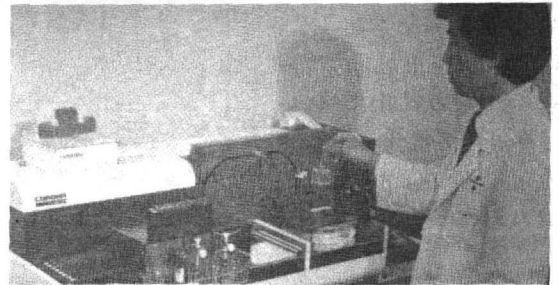
醫療需要와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해 '81년 8월 의료법인 대우조선의료재단을 설립(초대이사장 김효규박사) 하고 동년 9월에 옥포대우병원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83년 2월 120병상으로 개원에 이르게 되는데 지속적인 병원증축을 통해 220병상을 갖춘 현대식종합병원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우의료재단은 대우재단의 의료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곳으로서 현재 신안·무주·완도·진도·거제도(옥포)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落島·奧地의 의료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1978년 3월 대우문화복지재단으로 출발한 본 재단은 1982년 3월 대우재단으로 명칭변경



▲ 병원전경



▲ 종합검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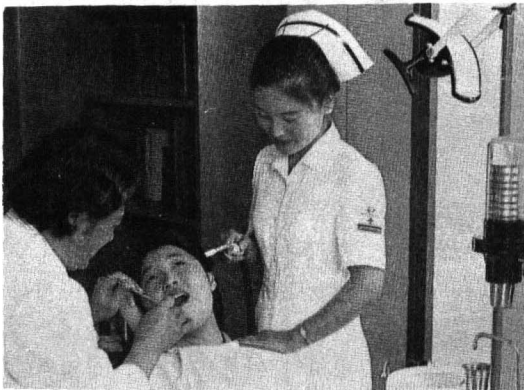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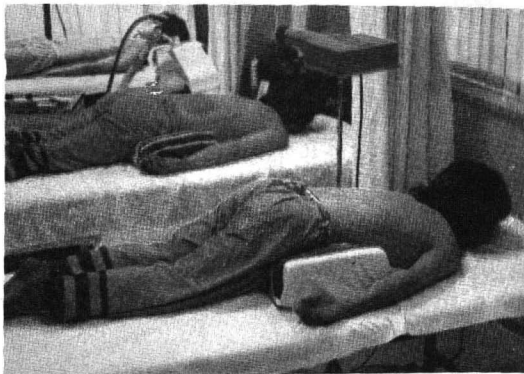
을 갖는데,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의 배려하에 250억원이 出捐되어 전국도서·오지지방의 의료사업을 위해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한다.

◀ 물리치료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의료접할수 있는 데는 그지역 주민의 선택된 혜택이기도 하겠으나 이러한 자원의 투자를 통해 많은 지역주민에 의료혜택을 줄수 있는 원동력이 민간부문의 뜻있는 意志로 과감히 행하여지고 있는 데에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과도기적현실에서보다 큰 의의가 있지 않나 하겠다.

◀ 치과진료

본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의 현대식 백색건물로 내·외과 46억을 투입하고 있는 첨단기술



의 産室로서 지난해 진료 실적을 보면 194,851명의 연외래환자와 43,292명의 연입원환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일평균외래환자 130명, 1일평균 외래환자 550명에 이르고 있어 진료 업무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세의대·경북의대·부산의대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본원은 의리기술훈련의 교류를 통해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의료시설과 인력면의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 수련교육병원으로서도 내실을 다져나가리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섬인 이곳은 원래 낙도의 위치조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진료각과의 특성을 살린 싸인보드

던 곳으로 이제 점차 교통수단의 발달과 산업시설의 개발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본원의 정착으로 인해 이지역은 도시어디에다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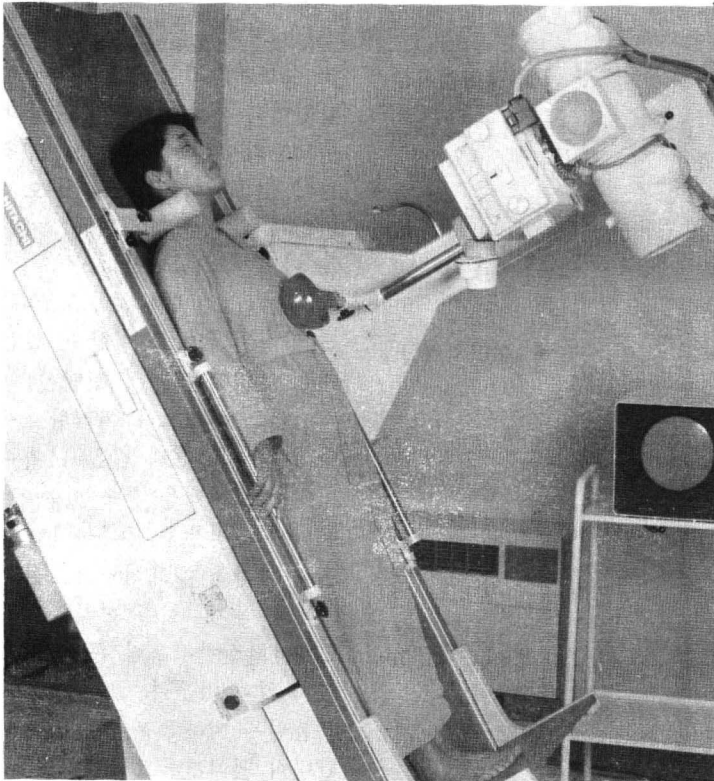


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함께 긍지와 보람에 차있는 듯하다.

본원은 산업장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환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보험점유월에 있어서는 85%, 병상가동률은 86%를 상회하고 있다.

진료각과에는 본원의 金炯植 박사가 이끄는 산부인과팀과 「예일」의대교수를 지낸 김정근 박사의 신경외과 그리고 부산의대학장을 역임한 김중국박사가 안과를 지키고 있으며 일반외과·소아과·내과 등 12개진료각과에서 진료시혜에 임하고 있다

본원의 설립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병원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본원의 金炯植 植病院長은 사업장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지역주민에 信賴받는 진료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圖謀하며 나아가 의료수준의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데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 산업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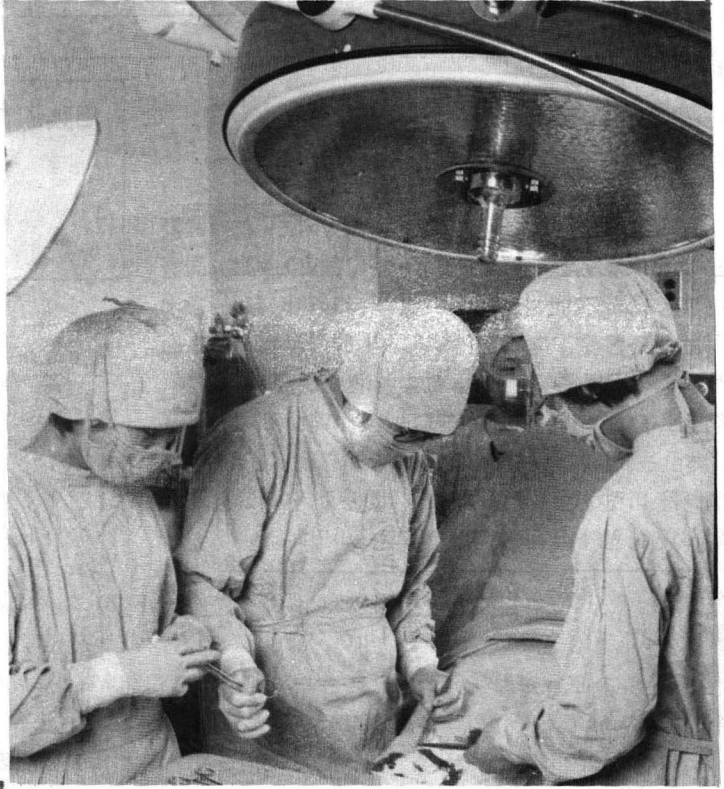


▲850mA Remote X-Ray

연구의 활성화와 함께 계속적인 시설보완을 추진할 것이다.

본원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에도 참여하여 정기적인 무료진료와 예방접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산하 근로자의 정기적인 특수검진을 통해 질병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원부설 산업의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재해의 역학 및 임상조사를 통해 산업보건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업장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지역주민의 낙후된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본원은 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건강을 보살피며 줌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기구에 진료시혜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나아가 국민복지 증진에도 모해 나가고 있는데, 누구나라 선뜻 나서려하지 않는 이러한 지형적인 여건 속에서도 사명과 긍지와 보람을 갖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본원의 병원장이하 전직원의 밝은 모습

▲수술광경

◀ 산뜻히 단장된 휴식공간

외국인을 위한 Foreign Clinic.



과 이윤의 축적으로 인한 발전보다는 많은 투자를 통해 사회에 혜택을 돌이켜주는 제도적인 支援속에서 본원의 발전과 나아가 이사회회의 밝은 미래가 기약되고 있는 듯하다.